

사계절 동안의 건강적인 골프를 즐기세요! 상선호 초대합니다.

임핑 다이내믹스 컨트리 클럽

- 광주·동광명IC 구간 광복 동원드 산동 (명절특별회합)IC 영수증 프린트 서비스
- 우천시 9월 이후 출발요금정산제 실시
- 예약 : www.hpdyne.co.kr 0801-320-7700

KIA, 태풍 '갈매기' 덕 볼까

선수들 집중력 떨어져 최근 빈타에 허덕 주말 두산 2연전 ... 한박자 쉬어갈 찬스

뜨겁게 달구어진 프로야구 순위 경쟁이 이번 주말 태풍 '갈매기'의 영향으로 잠시 소강상태로 접어들 전망이다.

삼성 라이온즈와 5위를 놓고 앞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KIA 타이거즈는 19~20일 막강한 저력을 자랑하고 있는 두산 베어스와 2연전을 치른다. 17일 현재 두산은 9연승 행진을 하면서 7월 승률이 0.769에 이른다.

두산과의 올 시즌 전적은 6승6패. KIA는 마운드 전력이 안정되면서 7월 8승5패로 선전하고 있지만 최근 5경기 득점이 2점에 머물면서 힘들

게 경기를 펼쳐나가고 있는 처지다. 상승세의 두산에 맞서 KIA 입장에서는 내심 '갈매기'가 물고기를 비가 반가를 수 밖에 없다.

7월 초반 거침없는 타격으로 평균 6.14의 득점력을 과시하던 KIA는 한화-SK-롯데로 이어지는 강팀들과의 숨막힌 일정을 소화해내면서 집중력이 부쩍 떨어진 모습이다. KIA는 집중력 문제를 노출하면서 한화·SK·롯데와의 경기에서 4승4패를 기록했다.

지난 9, 10일 KIA는 한화와의 홈 경기에서 이를 연속 나온 김선빈의 미숙한 수비를 빌미로 2연패를 당해 올 시즌 한화와의 대결을 8승10패로 마감했다.

13일 문학구장에서 열린 SK와의 경기에서는 아쉬운 주루 플레이가 속출하면서 1-3으로 역

전패 당했다. 3회 1사 만루의 대량 득점 찬스에서 나지완이 홈을 파고들다 아웃되면서 1점을 뽑는데 그친데 이어, 8회 대주자로 들어간 김형철이 런 다운에 걸려 아웃 되면서 공격에 찬물을 끼얹었다.

17일 롯데와의 사직경기에서도 KIA는 8인타를 터트리기도 2득점을 올리는 데 그치는 등 부쩍 힘이 떨어진 모습이다.

선발 투수들은 연일 퀄리티 스타트를 끊고 있지만 타선과 수비 지원을 받지 못해 번번이 승을 날리고 있다. 투·타의 동반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KIA는 한 박자 쉬어갈 수 있는 비가 천군만마다.

비로 한풀 꺾인 순위 경쟁은 다음주 22일 치열한 5위 다툼을 하고 있는 삼성과의 홈경기를 시작으로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올림픽 휴가 앞두고 1승 챙겨라"

광주 오늘 경남 원정, 전남 내일 인천과 홈경기



한 달간의 '올림픽 휴가'를 앞둔 프로축구 광주 상무와 전남 드래곤즈가 이번 주말과 휴일 1승 사냥에 나선다.

2008 K-리그는 이번 주말 7개 구장에서 진행되는 15라운드 경기를 끝으로 다음달 24일까지 올림픽 휴식기간을 갖는다. 이에 상무와 전남은 각각 13위와 12위로 최하위권에 처져있는 만큼 1승을 위해 주말 총력전을 펼친다는 전략이다.

시즌 초반 4위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플래그'를 일으켰던 상무는 최근 12경기 연속 무승(3무 9패)행진을 하면서 13위까지 곤두박질 했다. 승리에 목마른 상무는 19일 창원종합운동장을 방문해 올 시즌 첫 승세를 상대가 됐던 경남 FC와 맞붙는다.

지난 3월16일 경남을 홈으로 불러들여 2-0 승리를 거두었던 상무는 전력 상승세인 국가대표 공격수 김승용과 골키퍼 김용대를

공·수 전면에 내세워 15라운드를 승리로 장식하고 달콤한 휴식에 들어가겠다는 각오다.

좀처럼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전남은 지난 12일 광양전용구장에서 벌어진 포항과의 14라운드 경기에서 2-0으로 4연패를 끊은 만큼 한걸음 여유가 있다.

전남은 20일 광양전용구장에서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승점 3점 쟁기에 나선다. 수비의 핵 광태회가 부상으로 빠진 전남은 수비 조직력이 붕괴 되면서 올 시즌 3승3무3패로 12위에 머물고 있지만 지난 주 7경기 연속 무승 행진에서 탈출하면서 분위기가 살아났다.

전남은 기세를 몰아 지난주 포항을 상대로 득점포를 터트린 외국인 공격수 슈바와 수비수 김치우를 공·수의 핵으로 내세워 연승 행진을 준비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남자는 축구, 여자는 체조에 관심

베이징올림픽 좋아하는 종목 설문

베이징올림픽에서 남성팬은 축구, 야구, 복싱에 관심이 있는 반면 여성팬은 체조와 수영을 더 보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8일 싱가포르 발 기사에서 최근 비자카드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4천556명을 상대로 '베이징올림픽에서 가장 좋아하는 종목'을 물은 결과, 남성팬과 여성팬 사이 선호 종목이 뚜렷하게 갈렸다고 전했다.

아시아인들은 전반적으로 수영과 축

구, 체조를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성별에 따라 종목별 선호 편차는 제법 컸다. 축구를 좋아하는 남성팬은 53%에 이르는 반면 여성팬은 34%에 머물렀다. 반면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과 체조를 좋아한다는 여성팬은 남성 응답자에 비해 9~13% 더 많았다.

세대 간에도 선호 종목이 갈렸는데 45세 이상 응답자는 18~24세 응답자에 비해 육상과 야구에 두 배 이상 관심을 표명했다. 반면 젊은 층은 하키, 복싱, 테니스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탱크' 최경주 비바람 뚫고 선전

브리티시오픈 1R 15위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제137회 브리티시오픈이 올해도 낯선 날씨로 '자연과 싸움'을 예고하며 선수들을 괴롭혔다.

하지만 '탱크' 최경주(38·나이키골프·사진)는 강풍을 동반한 비 속에서도 침착한 경기 운영으로 한동안 부진을 씻고 우승자에게 주는 '블라데 지그'를 노릴 만한 선수임을 보여줬다.

최경주는 18일(이하 한국시간) 잉글랜드 사우스포트 로열버크데일 골프장(파70·7천180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를 버디 2개, 보기 7개를 묶어 2오버파 72타로 마치며 선두에 3타 뒤진 공동 15위에 자리했다. 일반 대회라면 결코 좋다고 할 수 없는 성적이지만 강한 바람과 거친 러프, 깊은 벙커로 무장한 링크스 코스에서는 상위권을 충분히 바라 볼 수 있는 타수.

한달전 US오픈에서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와 명승부를 펼친 끝에 준우승을 차지한 로코 미디에이트(미국)를 비롯해 그레이 맥도웰(북아일랜드), 로버트 앨런비(호주)가 1언더파 69타로 선두자리를 꿰찼다.



/연합뉴스

'톱 10'에 한국남자 7명

LPGA 스테이트팜 클래식 1R

미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스테이트팜 클래식 첫날 리더보드는 한국계 선수들이 점령했다.

재미교포 김초롱(23·미국 이름 크리스티나 김)은 18일(한국시간)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의 캔터크리 골프장(파72·6천608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이글 1개, 버디 7개를 쓸어 담아 9언더파 63타로 단독 선두에 나섰다.

2005년 미첼컴퍼니 토너먼트오브챔피언스 이후 우승이 없었던 김초롱은 그리은 두

차례만 놓쳤고 퍼트수를 26개로 줄이는 안벽에 가까운 경기를 펼쳐 작년 이 대회에서 2위에 그쳤던 아쉬움을 만회할 기회를 잡았다.

유선영(22·휴슨스)이 8언더파 64타, 장타자 이지영(23·하이마트)도 7언더파 65타로 각각 2, 3위에 올라 끊어졌던 한국자매 연승 행진을 이어갈 준비를 마쳤다. 또한 오지영(20·에머슨퍼시픽)이 6언더파 66타로 공동 5위, 위성미(19·미국 이름 미셸 위), 감지민(28), 최나연(21·SK텔레콤)도 5언더파 67타로 공동 10에 자리해 '톱10' 중 7명이 한국 및 재미교포 선수들이었다.

/연합뉴스

정수근 "피해자 만나 사죄할 것"

"죄송합니다. 곧 피해자 분들을 만나 다시 사죄하겠습니다."

음주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정수근(31·롯데)이 입을 열었다. 정수근은 18일 사건 경위를 차근차근 설명하고 야구 팬들에게 잘못을 빌었다.

정수근은 야구 팬이나 구단에 엄청난 피해를 끼친 데 대해 "이유야 어찌됐든 시즌 도중 술을 마시고 이런 일을 벌였으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누우쳤다.

피해자와 합의를 해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조만간 경비원들과 파출소에 다시 찾아가 몇 번이고 사죄를 하겠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누우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기회가 주어지면 몇 년 후가 됐든 그라운드에 다시 서고 싶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프로축구 강원FC 연말 정식 출범

어제 발기인 총회 ... 내달 주총

강원도민 프로축구단(가칭 강원FC)을 출범시키기 위한 작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강원도민 프로축구단 창단준비위원회는 18일 본관 회의실에서 김진선 강원지사와 정영환 강원도축구협회장 등 준비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기인 총회를 열어 관공을 승인하고 주시 배경과 납입 등 법인 설립에 따른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또 이어 열린 1차 이사회에서는 대표이사 에 김병두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 회장을, 감사에는 반중영 신한은행 강원본부장을 각각 선임했다.

강원FC는 내달 4일 제1차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도민주 공모와 사무국 구성 등 법인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오는 12월 42명 내외의 선수단으로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스포츠 주간

19일 (토)

- ▲2008 메이저리그 <클리블랜드 : 시애틀>(11:00·XSPORTS)
- ▲WBO 세계타이틀 전초전<전진만 : 왕준후>(14:00·KBS N SPORTS)
- ▲2008 일본프로야구<요미우리 : 요코하마>(14:30·MBC ESPN)
- ▲2008 프로야구<롯데 : LG>(16:50·XSPORTS), <두산 : 기아>(17:00·MBC ESPN), <한화 : 삼성>(16:30·KBS N SPORTS)
- ▲2008 K리그<수원 : 성남>(20:30·MBC ESPN)

20일 (일)

- ▲2008 메이저리그 <LA다저스 : 애리조나>(09:00·XSPORTS)
- ▲2008 일본프로야구<요미우리 : 요코하마>(14:30·MBC ESPN)
- ▲2008 프로야구<롯데 : LG>(16:50·XSPORTS), <두산 : 기아>(17:00·MBC ESPN), <한화 : 삼성>(16:30·KBS N SPORTS)
- ▲2008 K리그<서울 : 전북>(20:30·MBC ESPN), <포항 : 울산>(20:30·SBS 스포츠)



김나영의 댄스 실력은? 18일 오후 서울 잠실학생실내체육관 특설링크에서 열린 '현대카드 슈퍼스타즈 Ⅲ-2008 Superstars on Ice' 리허설 도중 김나영과 제프리 버틀이 함께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